해외신간

부처님의 지각

영국의 저명한 정신치료학자 데이비드 브라지어박사는 최근 저서 〈부처님의 지각(Feeling Buddha)〉에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불교의 근본 교리인 사성제로부터 긍지와 존엄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브라지어박사는 "부처님은 사성제에서 고(苦)를 회피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배가하도록 가르쳤다"며 "고(苦)는 삶의 전부가 아니며 일부분일 뿐이며 아픔·즐거움, 삶·죽음 등은 서로 뒤얽혀 있는 것"이라고 그 뜻을 설명한다. Fromm Intl 刊. p.p 208

거리의 제단

국제적인 참여불교단체인 불교평화교우회 상임이사 멜로디 체비스여사(美)는 폭력과 인종차별주의로 신음하는 사회의 고(苦)를 치유하겠다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투영한 책 〈거리의 제단〉을 출간했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도시를 떠날 수 없는 현대인들이 서로의 연관성을 깨닫고,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아이, 이웃, 사회, 국가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복과 깨달음의 실체를 계속 묻는 책. Random House 刊. p.p 288

중국지장존순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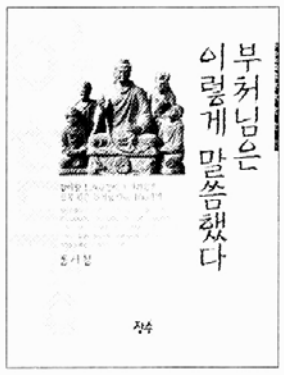
말법시대(末法時代)의 유일한 인도자이자 구제자로서, 옛부터 수많은 서민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온 지장보살. 중국 지장보살 신앙에 대한 해설서 〈중국지장존순배〉가 나왔다.

이번 발간된 〈중국지장존순배〉는 30여 사찰을 작가가 직접 순례하며, 사진과 함께 설명을 상세히 담고 있어 중국의 지장보살 신앙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시모야스바 요시하루(下休場 由晴) 著 / 주노서방(朱鷺書房) 刊.

가려뽑은 잡아함 100경의 지혜

홍사성씨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경전을 읽는다. 순간 2천6백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부처님이 나타난다. "마음은 나의 밭이고 믿음은 나의 씨앗이다…." 생생한 부처님의 음성. 그 가르침을 받아들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진리이자 듣고 싶었던 말씀이다. 마음의 어둠이 벗겨지고 환희심에 사로잡힌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장승 刊)를 펼치는 순간 다가오는 느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잡아함경〉. 이 책은 〈잡아함경〉에서 가려뽑은 1백개의 가르침을 마치 녹음테이프를 듣듯 생생하게 전해준다. 저자인 홍사성씨(불교시대사 주간)가 수년간 〈잡아함경〉을 읽으며 느꼈던 감동들을 다시 재현해 놓아 경전을 읽는 감동을 높여주고 있다.

잡아함은 장아함, 중아함, 증일아함으로 구성돼 있는 아함부 경전중 하나. 아함부 경전이 비교적 부처님 말씀의 원형에 가깝지만, 이중에서도 잡아함은 더더욱 그렇다. 제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때그때 일어난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솔직하고 간절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잡아함의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다. 50권 1,362경의 방대한 분량이기도 하지만 그 크기에 질려 쉽게 접하지 못하는 독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신 일상적인 교훈이 있고, 부처님의 인간적인 교화방법이 잘 드러나 있으며, 불자들이 꼭 알아야할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만 1백개를 골라 뽑았다. 그래서 더욱 금쪽같이 느껴진다.

주제별 정리…생활 적용안내
"생생한 부처님 음성 듣는다"

경전 내용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원문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쉽게 윤문해놓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또 각 경전마다 주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달아놓았으며, 경전 내용을 보강한 이야기와 경전에 드러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해놓았다. 읽는데만 그치지 않고 깨닫고 실행해보라는 배려에서다.

예를 들면 잡아함 42권 1153경 〈건매경〉의 경우 '바람을 향해 흙을 던지지 말라'는 주제어 아래 부처님을 향해 흙을 던졌으나 맞은편에서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어쓴 욕쟁이 파라트파차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보면 파라트파차와 같은 사람을 만나 뜻밖의 봉변을 당하기 쉬우나 이때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 대응하면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놓고 있다.

홍사성씨는 "방대한 경전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마치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값 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스트레스 명상 처방으로"

김정호-김선주씨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김정호 교수(덕성여대 심리학)와 김선주씨(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 연구위원)가 공동으로 펴낸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아름다운 세상 刊)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성한 구성물이라는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명상 등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한마디로 고(苦)이며, 이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이고득락(離苦得樂)의 길을 찾는 것임을 전제한다. 외부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비현실적인 욕망과 비합리적인 사고가 스트레스의 주범이며, 이는 마음을 다스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 책은 설명한다. 그리고 불교의 가치관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내면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제시한다.

스트레스에 따른 여러가지 반응과 이로 인해 생기는 질병, 환경적·개인적 스트레스 관리방안이 폭넓게 설명돼 있다. 값 1만3천원. 한명우 기자

"기와 호흡 다스리면 질병은 없다"

눈길끄는 건강서 3권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강서들은 기와 호흡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임경택교수(목포대 정외과)가 20년간 국선도를 수련한 경험을 토대로 쓴 〈숨쉬는 이야기-단침과 열기〉(명상 刊. 9천5백원)는 단전호흡의 원리를 쉽게 설명한 책. 마음과 병과의 원리, 단전호흡의 원리와 함께 호흡으로 건강을 지키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선도기공시술법〉(하남출판사 刊. 1만2천원)은 기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 저자 김영현씨(선도기공단전호흡협회장) 역시 질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보고 육체적·정신적 조화를 통해 질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젊은 의사 김윤준씨가 펴낸 〈배짱으로 안되는 건강〉(키출판사 刊. 8천원)은 각 분야 전문의들의 도움을 얻어 각종 암 등 18가지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며, 환경과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故 이기영박사 추모전집 셋째권

'불교개론 강의' 나왔다

원효의 대승불교관 등 불교의 요체 명쾌하게

11월 8일 출판기념 법회

우리나라 불교학의 현대화와 원효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고 이기영 박사 추모전집 세번째 권이 나왔다.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교수(동국대 부총장)가 엮은 〈불교개론 강의〉 상·하(한국불교연구원 刊)는 이박사의 투철한 신념이었던 원효의 대승불교관을 그대로 담았으며, 불교의 진리에 대한 요체가 자상하고 명쾌하게 설명돼 있다. 이박사가 한국불교연구원 부설 원효학당에서 강의했던 것을 정리한 것으로, '불연 이기영전집'의 제24권.

상권 제1장 '삼승(三乘)과 일승(一乘)'에서는 원효의 불교관이 불교사상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밝혔으며, 제2장 '삼보와 귀의'에서는 삼귀의가 삼승과 일승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는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하권의 제3장 '대승불전의 사상'에서는 여래장 사상과 화엄사상 등 대승불교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들을 발생순서에 따라 묶었다.

불교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 해설이나 현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핵심교의(敎義)를 담고 있어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어느정도 불교를 아는 독자들에겐 진리에 대한 불퇴전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책이다.

故 이기영 박사 2주기 추모법회 및 이 책의 출판기념회는 8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열린다. 값 각권 8천5백원. 한명우 기자

'전남 사찰 순례' 보성 대원사 펴내

전남 보성군 천봉산 대원사(주지 현장)는 전남 지역의 사찰을 소개한 안내책자 〈전남 사찰 순례〉를 펴냈다.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백련사 선암사 등 20개 사찰을 소개한 이 책자는 사찰소개, 주변관광지, 찾아가는 길을 정리해 놓았다.

또 유명한 문화재 등 사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도 실었으며 일어판도 함께 펴냈다. 비매품. (0694)852-1755

화제의 책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 법륜스님 지음

인류위기 극복의 열쇠는 연기법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 등 인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법륜스님(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은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연기법을 세계관으로 삼는다.그리고 부처님과 보살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무아·무소유·무아집을 수행의 지표로 삼는다.

또 세상과 자신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고 참된 자기실현과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갈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정토출판, 5천원〉

전탑 | 천득염 지음

한국전탑 특징-중국의 영향 '조명'

탑은 사용한 재료에 따라 목탑, 전탑, 모전석탑, 석탑 등으로 나뉜다. 이중 전탑은 벽돌을 사용해 탑을 축조한 것.

대원사가 계속해 펴내고 있는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220번째 〈전탑〉은 전탑의 기원에서부터 중국 전탑으로부터 받은 영향, 한국 전탑의 특징 등 전탑의 모든 것을 담았다. 안동 신세동 7층전탑 등 현존하는 전탑들을 세부적으로 조명했으며, 전탑과 양식이 비슷한 모전석탑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 컬러 자료사진이 풍부한 것도 이 책의 장점. 〈대원사, 4천8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화두 짓는 법	토방 편집부	토 방
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 종 서	여시아문
3	100문100답(불·보살·신중편)	법 정	동쪽나라
4	산에는 꽃이 피네	고명석·고광영	대원정사
5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김 용 옥	통나무
6	신도포교지침서(하)	성 일	불광출판부
7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8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9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10	그냥 갈 수 없는 길	이 도 원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중심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